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북한의 선택

최진욱 (기획조정실 실장)

Online Series CO 12-17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북한의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김정은의 공식승계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일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시작으로 최고 권력자로서 현 지도도를 통한 김정은의 이미지 구축작업,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 당규약에 3대세습의 명문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등장을 축하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등이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과 북한의 정치일정에 관한 관심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 정, 군의 최고위 직책을 독점하였고, 북한의 선전매체가 보여주는 김정은의 현지도 행보는 김정일 못지 않은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잘 짜여진 통제체제와 중국의 지원까지 감안하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체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최단기 승계 절차나 당대표자회에서 제1비

서로의 추대가 '김정일 동지의 유훈'임을 강조한 것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정일을 '영원한 당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위하여 여전히 김정일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 부족은 두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엘리트들의 충성경쟁이다.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은 후견인 그룹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점차 자신의 권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교체 혹은 숙청이 진행될 것이며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장례식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중 한명이었던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이 실각하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도 1선에서 물러났다. 이들을 대신해 최룡해 총정치국장(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보위부장 등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김정은의 후계 지명 이후 이제강, 박남기, 류경 등 수많은 엘리트들의 의문사와 숙청을 목격한 바 있는 엘리트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살아 남기위해서 충성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강경파의 과잉충성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취약한 권력 장악력으로 인한 정책조율의 문제점이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체제는 당-국가체제라는 제도화 된 통치시스템이 절대 권력자의 인적통치와 직할통치로 대체되었다. 조직지도부, 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외무성,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당, 정, 군의 핵심 기관들은 콘트롤 타워의 직접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콘트롤 타워에 집중되는 다양한 입장들이 매끄럽게 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콘트롤 타워의 부재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매뉴얼 없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2.29 미·북 합의 이후 '은하 3호' 발사 발표, '은하 3호' 발사를 외신기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가 정작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결정, '은하 3호' 발사의 실패 인정 등과 관련된 결정들이 과연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은하 3호' 발사 실패를 맞보고 '강성대국' 진입 실패를 인정하며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그동안 장례식과 정치행사로 잠복되어 있던 평양시 단장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강성대국'을 위한 과도한 비용지출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김정은 정권은 내부결속을 최우선시 할 것이다. 4.15 행사에서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이미지 구축 작업을 통해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은 부드러운 지도자, 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하는 지도자, 선군정치의 계승자,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개혁·개방 지도자의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김정은의 외국생활 경험과 20대의 나이를 감안하여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김정은의 행보나 정권의 속성을 보면 그러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은하 3호’ 발사의 실패를 인정한 것을 김정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으려는 분석 역시 김정은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과 같은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 오늘날 북한의 20, 30대는 그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보다 해외 경험이 훨씬 적다. 해방 이후 북한의 지도부에는 중국과 소련 등 해외 경험을 한 인물들이 많았으며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전인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과 동구권에 많은 북한의 지도층들이 유학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난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해외 유학이나 해외 생활 경험은 대폭 감소되었다.

내부를 결속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은 외부 긴장을 조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이다. 남한과는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 경제적 지원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암묵적 인정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인해 올해 대미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은하 3호’ 실패를 만회하고 내년도 대미 협상을 대비해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긴장고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과의 긴장은 안보 불안에 대한 남한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쳐 차기 정부가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과는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의 긴장고조가 과거 김정일 정권 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없는 북한이 긴장조성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예컨대, 엘리트들의 충성경쟁으로 인해 북한의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이 과열되는 것을 김정은이 제어하지 못하여 실제 도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